

문언문 수업의 교육 내용에 대한 제안

— 증문과 전공 수업을 중심으로

尹 淳^{*}

<목 차>

1. 서 론
2. 문언문 교육의 목표와 방향
3. 교육 내용의 비판적 검토
4. 검토의 결과와 대안의 제시
5. 결 론

1. 서 론

1992년 한중 수교를 기점으로 한중간의 인적, 물적 교류는 급속히 증대되었으며 최근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사회 전반에서 중국어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크게 늘어났다. 대학의 경우 전공과 교양을 불문하고 많은 학생들이 중국어 강좌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학계의 중국어 교육 관련 연구도 지속적인 증가의 추세에 있다. 그러나 기존의 관련 연구는 현대중국어를 중심으로 언어 구조에 대한 대조 연구나 학습자 오류의 교육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어문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한어(古漢語) 혹은 문언문(文言文)¹⁾ 교육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도에 비해 관련 성과가

* 高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講師

1) 국내 한문학 혹은 국문학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사·곡 또는 소설의 언어와 대비되어 한자로 이루어진 문어체 문장의 뜻으로 '한문(漢文)'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한문'은 한자로 쓰인 모든 문장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 경우 현대중국어는 물론 운문, 회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필자가 소속된 대학의 중문과는 전공 필수 교과로 ‘중국고전강독’을 2학기 과정으로 매 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언문으로 기록된 중국의 역대 산문들을 선별하여 강독 중심의 수업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양한문’류의 수업과 매우 유사하다.²⁾ 하지만 문언문을 이해하고 그것을 현대중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주된 교육 목표라는 측면에서 ‘교양한문’류의 수업과는 차이가 있다. 본 수업의 설계는 중국의 각 대학 중국어문학 관련 학과에서 대부분 필수 과목으로 운영되는 ‘고대한어(古代漢語)’ 수업과 상당히 유사하다. 하지만 학습자의 사전 학습 정도가 매우 상이하여 진도, 난이도, 학습량 모두 큰 차이를 보인다. 국내의 수업이 고한어 관련 어학 지식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2017년 현재 해당 강좌는 중국어 원어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강 인원은 대부분 초급 과정과 중급 과정을 마친 3학년 이상의 전공자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 학기 최대 40명 정원의 분반이 최소 4개 이상 개설되며 해당 학과가 개설하는 전공 수업 가운데 총 수강인원이 가장 많은 편이다. 30년 이상 전공 필수과목으로 개설되었으며 2004년부터 원어강의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타 대학의 관련 강좌에 비해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강좌는 현대중국어라는 외국어를 매개로 중국의 고전문의 이해를 목표로

곡, 소설, 백화문 등 여러 개념을 모두 포괄할 수 있어 오해의 소지가 크다. 중문학 학계에서는 현대중국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고대중국어’ 혹은 ‘고(대)한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이 용어는 시대성만을 고려하여 문언문, 백화문, 산문, 운문, 회곡, 소설 등 문체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반면, ‘문언문(文言文)’은 시대성과 문체적 특징을 모두 고려한 개념으로 현대중국어, 백화문, 운문 등을 모두 배제한다. 협의의 ‘한문’에 상당하는 개념으로 학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인다. 한편, 영미권 학계에서는 ‘문언문’과 동일한 개념으로 ‘고전중국어(Classical Chinese)’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었다. 하지만 신지원(2014)은 최근 미국 학계에서는 역사적 특수성이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문언중국어(Literary Chinese)’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있다고 하였다. 본고는 오해의 여지가 없고 보편적으로 쓰이는 ‘고(대)한어’와 ‘문언문’ 두 용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겠다.

2) 2017년도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 《교수요목》은 본 강좌의 주요내용을 “中國古典의 解讀能力을 배양하기 위하여 文, 史, 哲 방면의 古典을 골라 뽑아 강독하면서 이에 기초해서 古典의 의미를 파악하여 현대의 시각으로 재조명해 본다.”로 제시하고 있다.

한다.³⁾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문언문 문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것을 현대중국어로 번역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교재와 수업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현대중국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통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현대중국어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능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강좌는 학습자가 하나의 강좌를 통해 동시에 여러 종류 정보를 동시에 습득하고 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문언문 교육, 중국어 원어강의, 중국어 작문 등의 수업에서 자주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함께 내재하고 있다.

현행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한문 과목은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능에서 선택율도 매우 낮은 편이다.⁴⁾ 또한 해당 학과에는 1학년 혹은 2학년 전공 과정에서 한자 혹은 문언문 관련 강좌가 별도로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의 학생들에게 문언문은 매우 생소한 학문 영역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강좌는 2학기라는 제한된 시간을 통해 문언문의 입문과 심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난점을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원어강의로 지정된 이후인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초판 발행된 두 권의 지정 주교재는 문자, 음운, 어휘, 문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원문 하단의 일부 주석에서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강의가 원어로 진행되면서 교수자의 전달력에도 상당한 손실을 피할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학습자 구성이 다양화되면서

3) '중국어교과강독' 수강자의 주요 임무는 문언문으로 기록된 작품을 이해하고 그것을 현대중국어로 옮기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학기 중 1회 혹은 2회 정도 일정 분량의 원문을 현대중국어로 번역하여 발표하는 참여형 과제와 정기시험을 전후로 기 학습한 분량 전체에 대한 번체자, 간체자, 한어병음, 중국어 및 우리말 번역문 등을 손으로 작성하는 쓰기 과제가 부여된다.

4) 1995년부터 시행된 제6차 교육과정은 중·고등학교 공히 한문 교과를 과정별 선택과목으로 변경하였다. 2001년부터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과는 국민공통 기본교과에서 배제되어 재량활동에 귀속되었으며, 고등학교 한문 교과는 교련과 동일한 선택과목군에 귀속되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교과 집중 이수제의 영향으로 한문 교과의 시수는 다른 학과에 비해 더욱 위축되었다.

수업에 사용할 현대중국어의 난이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교수자나 학습자 모두 교학의 과정에서 상식이나 감각에 의존하거나 단순한 반복 학습에 의한 습득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본 수업이 문언문에 대한 입문의 과정이며 훈련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문자학이나 음운학 등을 전문적으로 학습하는 별도의 과목이 있다는 점 그리고 원어로 강의가 진행된다는 점 등에서 이론 중심의 수업 설계는 근본적으로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중국어 학습의 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교양중국어나 초급중국어의 과정이 이론 자체를 직접 제시하지는 않지만 음성, 어휘, 문법 등의 이론적 내용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강좌의 교육 내용을 다시 검토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중국어문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언문 수업의 교육 내용과 설계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고전강독’ 수업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지만 특정 교과목에 구애받지 않고 문언문 교육 전반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언문 수업 학습자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였다.

2. 문언문 교육의 목표와 방향

전공이 아닌 교양으로서 문언문 혹은 한문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할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한자어 어휘의 이해력을 제고하여 우리말을 보다 능숙히 구사한다.”, “한자문화권인 중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의 사람들과 소통한다.”, “고전의 이해를 통해 과거의 지혜를

배운다.”, “전통의 예절과 윤리를 학습한다.” 등의 주장이 제기된다. 이 밖에도 다양한 설이 성립될 수 있겠으나,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문언문에 사용된 문자나 문장의 해독 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하는 언어 자체에 대한 교육이고, 둘째는 문장의 해독 차원을 넘어서 문헌이 함의하는 내용을 통해 종합적 사고를 하게 하는 일종의 문화(혹은 교양) 교육이다.⁵⁾ 환언하면 문언문 교육에서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이 가장 핵심적인 영역인 셈이다. 이 두 방면을 중심으로 각각의 합리적인 교육 내용과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하여 기대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 문언문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만약 해당 수업이 입문 과정이라면 그 중점은 ‘문화’보다 ‘언어’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학습자는 수업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고전 문헌을 해독하고 이해하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관련된 문화 지식을 이해하고, 자기화의 수준에서 보다 심도 있는 사고와 토론을 하며, 더 나아가 대학원이나 연구기관의 독립적인 연구 주체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언문 수업은 반드시 이와 같은 학문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설계해야 한다. 물론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설계는 학습자의 상황과 다른 교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고전강독’은 문언문 학습의 입문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본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은 문학사, 시가, 소설, 산문 등 고전문학이나 문자학, 성운학, 훈고학 등의 언어학의 도입 단계에 필수적인 기초적 도구가 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본 수업은 ‘초급중국어’류 수업과 마찬가지로 ‘언어 교육’을 중심으로 설계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문화 교육’은 ‘언어 교육’의 기초 위에서 달성해야 하는 미래지향적 목표로 고려되어야 한다. 흥미로운

5) 정윤철(2012)이 제시한 중국어교육의 연구영역 분류 체계에 따르면, 전자의 경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통번역의 언어기능과 한자, 어휘, 어법 등의 언어요소의 교육을 지칭한다. 후자의 경우 언어요소의 일부인 문화 교육에만 해당된다. 물론, 문언문 교육에 있어 문화 교육은 단순히 중국 고대의 생활 문화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 역사, 철학, 지리, 천문 등 광범위한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

점은 별도의 설명이 없었음에도 ‘중국고전강독’의 수강생들은 본 수업을 대체로 언어중심의 수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⁶⁾ 필자 역시 본 수업의 중심이 ‘언어 교육’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어교육학 학계의 문언문 관련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⁷⁾ 유사한 교육목표를 지향하는 한문교육학 학계의 관련 연구 또한 대학 한문 수업의 언어 교육에 대한 논의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⁸⁾ 주로 작가, 작품, 사상, 인성 등의 내용적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며, 언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한자나 한자어의 구성에 대한 주제들 이른바 ‘생활 한자’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원문을 해독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문법, 허사 등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러한 학술적 편중 현상은 역사적 맥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의 보편적 문언문 교육은 서당 교육에서 기원하였으며, 문언문 학습의 목표는 반복학습에 의한 文理의 획득이었다. 물론, 이러한 전통적 방법에도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범람하는 정보와 자료를 처리해야 하는 21세기의 대학 교육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문언문 교육을 일관할 수는 없다. 중어중문학 전공자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더욱이 그러하다.

문언문 교육의 기본 목표를 일정한 수준의 언어 능력의 배양과 문화 지식의 전달 두 분야로 설정하였다면, 다음 단계는 해당 강좌를 통해 이 목표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 방안은 해당 강좌의 학습 내용을 무엇

6) 본 수업의 성격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본 수업을 ‘어학 수업’ 혹은 ‘대체로 어학 수업’이라고 인식한 학생은 전체의 40.5%였고, ‘대체로 문학 수업’이라고 인식한 학생은 18.9%에 불과했다. ‘문학 수업’이라고 인식한 학생은 0%였으며, 비중이 동일하다고 인식한 학생은 23.0%였다.

7) 중문학계의 연구는 한문 교육의 언어학적 방법 논의한 변형우(2002), 한문 교육 방법을 총론적으로 논의한 이강재(2002), 중국 고전문학 작품의 교육 방안을 논의한 신하운(2002)은 중국어문학과와 문언문 교과에 대한 현황과 제안을 논의한 이제우(2006), 초학자의 문언문 번역 방법을 논의한 이제우(2017) 등이 있다.

8) 강민호(2014)에 의하면 한문학계의 논의는 주로 전공교과보다는 교양한문류 수업에 집중되어 있다.

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 즉, '교육 내용'과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검토 즉, '교육 방법' 두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본고는 교육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안할 것이다. 그리고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 방법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함께 제시하겠다.

3. 교육 내용의 비판적 검토

현행 수업의 교육 내용은 지정된 주교재의 기본적인 내용과 구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 '중국고전강독'의 교육 내용을 교재와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중국어 '고대한어'와 국내의 교양한 문류 수업과의 비교 및 수강자 설문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각각 제시할 것이다.

3.1 현행 교육 내용의 검토

본 강좌는 중문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1년간 중국어 원어로 강의가 진행된다. 본 수업은 중급 이상의 중국어 실력을 요구한다. 하지만 수강생들의 한자와 문언문에 대한 이해도는 편차가 큰 편이다. 주교재로 지정된 《古代漢語評釋》(이하 《評釋》)은 대체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려 저술되었다. 특별히 우리말 발음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내용은 중국어로 기술되어 있다. 1년 과정의 분량이 총 2권으로 분권되어 있으며, 각 권은 모두 15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古代漢語評釋1

一、古代神話, 二、《左傳》, 三、《論語》, 四、《孟子》, 五、《墨子》和《莊子》, 六、《荀子》和《韓非子》, 七、《戰國策》, 八、賈誼和晁錯, 九、《史記》, 十、《世說新語》, 十一、陶淵明, 十二、《水經注》, 十三、其他六朝散文, 十四、韓愈, 十五、柳宗元,

古代漢語評釋2

一、唐代駢文, 二、其他唐代散文, 三、歐陽修, 四、王安石, 五、蘇軾, 六、其他宋代散文, 七、金元散文, 八、歸有光, 九、袁宏道, 十、晚明小品, 十一、其他明代散文, 十二、黃宗羲, 十三、散文, 十四、龔自珍, 十五、其他清代散文,

각 과의 배열순서는 인용된 문헌의 저작 연대를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제목은 인용된 본문의 편명, 작자명, 체제 등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제1권 제2과의 제목은 '左傳'이고, 제2권 제3과의 제목은 '歐陽修', 제3권 제3과의 제목은 '唐代駢文'과 같은 방식이다.

모든 과의 서두에는 '작자(作者)'와 '해제(解題)'라는 제목과 함께 인용된 본문에 관련한 작자와 작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작자' 부분은 주로 작자의 생년이 소개되어 있는데, 주로 문학사적 성과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해제'는 인용된 부분의 줄거리, 주제, 사상, 교훈점 등이 요약되어 있다. 각 과의 '본문(課文)'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중점본문(重點課文)' 두 번째는 '읽기본문(閱讀課文)'으로 명명되어 있으며, 각각 본문의 내용을 압축하는 문구가 副題로 달려 있다. '중점본문'은 현대중국어 로 작성된 '번역문'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으나, '읽기본문'의 경우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실제적인 교과 운영에 있어 일반적으로 '중점본문'이 주요한 학습 대상이 되며, '읽기본문'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된다. 두 종류의 '본문' 하단에는 모두 각주가 부기되어 있는데, 주로 어려운 글자의 발음을 표시해 두거나 난해한 부분의 의미를 현대중국어 로 설명해 두었다.

사용된 언어를 살펴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말 사용은 배제되었으며, 대부분 중국어로 내용이 기술되었다. 다만 '본문' 즉, 원

문 부분은 번체자를 사용한 반면, ‘작자’, ‘해제’, ‘번역문’ 부분은 모두 학생들에게 비교적 친숙한 간화자를 사용하였다.

본 교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교재와 달리 본 교재는 문법, 어휘 등과 관련한 고한어 관련 어학 지식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설명을 줄여 인용된 문헌의 해석과 감상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분명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감상과 평가의 전제는 원문의 정확한 해독이다.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어학 지식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기된 주석에는 “○通○”, “○同○”, “○用作動詞”, “形容詞的意動用法” 등과 같이 학생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학술적인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한다.

둘째, 대다수의 교재들이 원문을 난이도, 길이, 주제, 문체 등의 기준으로 배열한 것과 다르게 본 교재는 단순히 저작 연대만을 기준으로 배열하였다. 그런데 본 교재는 전체적으로 언어학 또는 문학과 관련한 지식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제공하였다. 부분적으로 언급된 내용들도 대부분 역사적 맥락과는 무관하다. 그렇다면 본문을 시대 순으로 정렬했을 때의 장점은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연속성과 점진성의 원칙을 고려하는 새로운 본문의 배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작자’와 ‘해제’의 서술이 난해하며 문학사적 관점에 다소 편중되어 있다. 각 과의 서두에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이유는 문장의 이해에 필요한 언어 외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데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작자’ 부분은 작자의 저술 배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 생평을 요약하고, ‘해제’는 본문의 내용과 주제를 압축적으로 정리하되 필요한 경우 기법이나 문체상의 특징 등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소개하는 정도가 적절하다. 하지만 본 교재의 ‘작자’에는 사상적 특징, 문집의 성립 과정과 문학사적 의의와 같이 문학사에서 언급할 만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해제’에는 본문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나 관련된 교훈이 요약된 경우가 많은데, 작품을 감상하기 전에 정형화된 감상법이나 계몽적 교훈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창의적 사고를 저

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 외에도 ‘작자’, ‘해제’ 모두 학술적인 용어들이 빈번히 출현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는데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끊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넷째, 주석과 보충 설명이 부족하다. 본 교재는 원문의 해독을 위한 정보가 원문에 부기된 注釋을 통해서만 제공되며, 문법, 어휘, 문자 등을 학습하기 위한 별도의 章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注釋은 해독에 필요한 정보를 학생들이 스스로 복습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세히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본 교재의 주석은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모두 부족한 편이다. 이 때문에 다수의 학생들이 원문의 문장을 단어와 구로 분석하여 정확히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해당 원문의 현대문 해석을 독해문을 학습하듯이 따로 연습하고 단순히 그것을 원문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학습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본 수업의 교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같은 이유에서 역사, 지리, 군사, 천문, 역법, 예술 등 고대 문화 상식에 관한 정보들도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다만 이들은 요약식으로 기술하더라도 단어나 구의 풀이보다 분량이 많을 것이므로, 독립적인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독성 제고에 유리할 것이다.

다섯째, 《誦釋》의 분량은 한 학기에 한 권씩 소화하기에는 다소 많은 편이다. 대개의 경우 학기 중 교재에 인용된 원문의 30%~40%만을 학습하는 데 그친다. 원문의 개수도 많은 편이지만 <鴻門宴>과 같이 인용문의 편폭이 과도하게 긴 것도 있다. 편폭이 긴 원문은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교재 전체의 원문 분량은 교수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학기 중에 대략 전체의 50% 내외의 분량을 학습할 수 있는 정도가 적절하다.

3.2 《고대한어(古代漢語)》의 검토

www.kci.go.kr

‘중국고전강독’의 기본 설계와 운영 방식은 중국의 ‘고대한어(古代漢語)’ 수

업과 유사하다. ‘고대한어’는 학교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1년 과정의 중문과 3학년 전공필수 교과로 운영된다.⁹⁾ 중문과 이외에 여러 전공에서도 필수 혹은 선택 과목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필자의 청강 경험에 의하면 분반을 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100명 이상의 대형 강의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고대한어’ 수업은 1956년에 國家高等教育部에 의한 《古代漢語教學大綱》 반포와 함께 기본적인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이 규범화되었다. 1962년부터 1964년에 걸쳐 초판 인쇄된 王力主編의 《古代漢語》는 北京大學의 수업을 토대로 이론과 실제의 조화의 원칙에 입각하여 저술되었고 이후 관련 교재의 저술에 큰 영향을 주었다. ‘文選’, ‘常用詞’, ‘通論’의 삼요소가 매 단원마다 결합된 삼위일체형 구조로 설계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文選’은 원문과 관련된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常用詞’는 주요 글자들의 字義가 풀이되어 있고, ‘通論’은 古漢語 관련 필수 이론들을 선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고대한어’ 관련 교재가 출시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 구성, 난이도 등은 대체로 王力本과 일맥상통한다. 최근 비교적 많이 통용되는 교재로는 王力本 이외에도 商務印書館의 郭錫良本, 復旦大學出版社의 張世祿本, 高等教育出版社의 許嘉璐本 등이 있다. 王力本과 許嘉璐本이 편폭이 긴 편이며, 郭錫良本과 張世祿本은 상대적으로 편폭이 짧다. 아래에서는 王力本과 郭錫良本을 중심으로 중국의 ‘고대한어’의 주요 교육 내용과 교과 설계 상황을 검토하고 국내 문헌문 수업의 운영에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정리할 것이다.

王力本은 총 14개의 單元으로 구성되며 4冊으로 분권되어 있다. 원문과 설명 모두 번체자로 표기되었다. 각 단원은 ‘文選’이 저술된 시대 순으로 배열되 문체의 차이를 함께 고려하였다. 동일한 기준 내에서는 난이도가 낮은 것을 높은 것 보다 앞 쪽에 배치하였다. 중요한 작자나 작품의 경우 서두에 중요한

9) 중국의 학제에서 전공필수교과(專業必修課程)는 전공기초(專業基礎)교과와 전공기본(專業主幹)교과로 세분되는데 ‘고대한어’의 경우 전공기초교과에 해당된다.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凡例에 따르면 注釋은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채택된 해석 하나만을 취하고 여러 異說들은 되도록 배제하였고, 고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독이 불가능함을 표시하였다. '常用詞'는 '文選'에 출현한 글자 가운데 빈도가 높은 것들을 매 단원마다 60-80개 정도 선별하여 각각의 다양한 의미와 용법을 설명하였는데, 대체로 단어의 의미를 유형별로 나누어 편집하였다. '通論'은 고한어 해독에 필요한 이론적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교육의 연속성'과 '본문과의 관련성'의 원칙의 의거하여 내용과 배열 방식이 정해졌다. 아래의 <표 1>은 王力本 《古代漢語》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王力本(中華書局, 1962-1964/1999)의 주요 내용

單元	文選	常用詞	古漢語通論
一	《左傳》(10)	(一)	(一)怎樣查字典辭書 (二)古今詞義的異同 (三)單音詞·複音詞·同義詞 (四)詞的本義和引申義
二	《戰國策》(6)	(二)	(五)漢字的構造 (六)古今字·異體字·繁簡字
三	《論語》(18) 《禮記》(7)	(三)	(七)判斷句·也字 (八)敘述句·矣字 (九)否定句·否定詞 (十)疑問句·疑問詞
四	《孟子》(10)	(四)	(十一)詞類的活用 (十二)人稱代詞·指示代詞·者字·所字
五	《墨子》(1)《老子》(1) 《莊子》(9)《荀子》(1) 《呂氏春秋》(1) 《韓非子》(1)	(五)	(十三)連詞·介詞 (十四)句首句中語氣詞·詞頭·詞尾
六	《詩經》(25)	(六)	(十五)《詩經》的用韻 (十六)雙聲疊韻和古音通假
七	《楚辭》(6)	(七)	(十七)古書的註解(上) (十八)古書的註解(下)
附錄	(一)簡化字與繁體字對照表 (四)上古聲母類及常用字歸類表	(二)漢字部首舉例 常用詞音序檢字表	(三)上古韻部及常用字歸部表 常用詞筆畫檢字表
八	《史記》(2) 《漢書》(2)	(八)	(十九)古代文化常識(一) (二十)古代文化常識(二) ——天文·曆法·樂律 ——地理·職官·科舉
九	賈誼(1)鄒陽(1) 枚乘(1)司馬遷(1) 楊惲(1)李密(1)	(九)	(二十一)古代文化常識(三) (二十二)古代文化常識(四) ——姓名·禮俗·宗法 ——公室·車馬·飲食·衣飾·什物
十	唐宋古文(11)	(十)	(二十三)古文的文體及其特點 (二十四)古書的句讀
十一	駢體文(8)	(十一)	(二十五)駢體文的構成(上) (二十六)駢體文的構成(下)
十二	賦(13)	(十二)	(二十七)賦的構成 (二十八)古漢語的修辭
十三	詩(90)	(十三)	(二十九)詩律(上) (三十)詩律(下)
十四	詞曲(52)	(十四)	(三十一)詞律(上) (三十二)曲律(下)
附錄	(一)天文圖 (二)詩韻常用字表 (五)曲韻常用字表	(三)詞譜 常用詞音序檢字表	(四)曲譜 常用詞筆畫檢字表

王力本이 ‘중국어고전강독’의 설계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古漢語 독해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들은 ‘通論’이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설명하고 있다. 총 32개의 통론은 辭書·語彙(4), 文字(2), 文法(8), 音韻(2), 注解(2), 文化常識(4), 文體·句讀(2), 駢文·賦(3), 修辭(1), 格律(4)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주로 독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물론, 국내의 수업에 적용할 경우 반영 대상과 난이도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

둘째, ‘文選’, ‘通論’, ‘常用詞’ 세 부분이 별도의 章으로 구분되지 않고 각 단원 별로 적절히 분배되어 있다. 이 방식은 古漢語를 讀解하면서 자연스럽게 理論을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반면, 張世祿本과 許嘉璐本은 ‘文選’과 ‘通論’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였다. 이론 자체에 집중하여 체계적으로 교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문언문 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원문과 어휘가 서로 분절되어 학습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 적용할 경우 학생들의 사전 학습도와 기타 교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서는 전체적으로 어휘의 학습을 강조하였다. ‘常用詞’를 ‘通論’이나 ‘文選’과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본서의 凡例에 따르면 원문에 출현한 글자의 의미와 용법이 현대중국어와 차이가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모두 注釋으로 처리하여 설명하였다. 다만 후반부로 갈수록 주석의 양을 감소시켰다. 물론 《評釋》에도 많은 주석이 있다. 하지만 제시된 주석만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복습을 하기에는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 王力本과 같은 기준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상세한 주석을 제공하거나 ‘常用詞’와 같이 별도의 어휘 설명 항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郭錫良本은 1979년 초판이 발행된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王力本의 ‘文選’, ‘常用詞’, ‘古漢語通論’ 삼위일체의 기본구조는 ‘文選’, ‘詞義辨析舉例’(詞義), ‘古代漢語常識’(이하 ‘常識’)로 명칭만 바뀐 채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제시하는 내용은 王力本과 대체로 대동소이하다.¹⁰⁾ 반면 전체적인 분량은 크게 축

10) 王力本의 ‘通論’, ‘常用詞’는 각각 郭錫良本의 ‘古代漢語常識’, ‘詞義辨析舉例’에 상응한다.

소되어 2권으로만 제작되었다.

‘文選’, ‘詞義’, ‘常識’의 각 내용들은 王力本에서 단위별로 번갈아 제시되었다. ‘文選’은 문체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詞義’는 어휘의 분석 방법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常識’은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각각 6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각의 그룹을 한 단위씩 통합하여 편집했다. 이 결과로 기존의 단원은 사라지고 6개로 나뉜 ‘文選’, ‘詞義’, ‘常識’의 내용이 번갈아가며 6개의 큰 단원을 이루는 형태로 바뀌었다. 복합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고한어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이 간단명료하게 정리되어 학습자의 이해도를 제고하였다. 아래는 郭錫良本 《古代漢語》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郭錫良本(商務印書館, 1999)의 주요 내용

연번	文選	詞義辨析學例	古代漢語常識
1	雜記文(14)	(一)古今詞義不同辨析例	(一)怎樣查字典辭書 (二)漢字的結構和發展 (三)古今詞義的異同 (四)詞的本義和引申義
2	史傳文(20)	(二)詞的本義探求例	(五)詞類的活用 (六)古代漢語的詞序 (七)古代漢語的判斷句 (八)古代漢語的被動表示法 (九)副詞 (十)代詞 (十一)介詞、連詞 (十二)語氣詞和詞頭、詞尾
3	應用文(16)	(三)引申義分析例(上)	(十三)古代的姓氏和名號 (十四)古代的職官 (十五)古代的地理 (十六)古代的曆法 (十七)古漢語常用工具書
4	說理文(14)	(四)引申義分析例(下)	(十八)古書的注解 (十九)古書的標點問題 (二十)古漢語今譯問題 (二十一)古代的文體
5	駢文·辭賦(16)	(五)同義詞辨析例	(二十二)駢體文的構成 (二十三)辭賦的構成 (二十四)古代漢語的修辭方式
6	詩·詞(81)	(六)同義詞探求例	(二十五)古今語音的異同 (二十六)上古音簡說 [附] 古韻三十部常見諧聲表 (二十七)古書的讀音問題 (二十八)詩律 (二十九)詞律

郭錫良本이 ‘중국고전강독’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文選’을 文體를 기준으로 배열하여 단계별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본서는 원문을 문체별로 雜記文, 史傳文, 應用文, 說理文, 駢文·辭賦, 韻文 등 6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동일한 그룹 내에서는 연대순으로 배열하였

다. 그 가운데 雜記文과 史傳文은 사물, 경관, 인물, 사건 등을 객관적으로 描寫하거나 敘事하는 것이 주요한 저술 의도이다. 이러한 문장은 언어의 문제만 해결하면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편폭이 길지 않고 난이도가 적절하다면 입문 단계에 가장 적합한 문체라 할 수 있다. 반면 작자의 주관적 견해나 감정을 전달하거나 특수한 목적을 위해 쓰인 說理文과 應用文은 정치·사상·학술·문화상식 등 여러 언어 외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입문 단계를 마친 학습자들에게 적합하다. 駢文과 詩·詞·賦 등의 韻文은 언어 형식이 散文과 크게 다르다. 형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학습하는 것이 적합하다.

결과적으로 郭錫良本은 문장이 대체로 평이하고 주제가 명료하여 입문자에게 비교적 적합한 唐宋古文들이나 《左傳》, 《史記》와 같은 歷史散文을 앞쪽에 배치하고, 문장 구조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부수적으로 철학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諸子百家의 문장을 중반 이후에 배치하였는데 이는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단순히 원문의 저작 시대가 아닌 문체, 내용, 형식 등을 교과 설계의 핵심적인 요소로 고려하는 방법은 국내의 수업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詞義’가 주제별로 구성되어 어휘의 기본 개념을 연습하는 데 용이하다. 고한어 어휘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어휘의 다의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달려있다. ‘詞義’의 전체적인 구성에 ‘常識’에서 제공된 古今義의 차이와 本義와 引伸義의 개념, 同義語와의 대조 등에 관한 지식이 반영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이미 학습한 이론을 실제적인 언어 현상에 적용하는 훈련을 할 수 있다.

셋째, ‘常識’이 ‘文選’을 고려하여 주제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론을 학습할 수 있다. 郭錫良本의 ‘常識’에 상응하는 王力本의 ‘通論’은 辭書·語彙(4), 文字(2), 文法(8), 音韻(2), 注解(2), 文化常識(4), 文體·句讀(2), 駢文·賦(3), 修辭(1), 格律(4) 등 총 32개의 주제가 14개의 단원에 분산되어 체계적인 학습에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郭錫良本은 辭書·語

彙·文字(4), 文法(8), 文化常識(5), 注解·標點·今譯·文體(3), 駢文·辭賦·修辭(3), 音韻·律格(5) 등 29개의 내용이 주제별로 6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어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습에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비교적 용이한 기본 개념을 앞쪽에 배치하고, 사전 학습이 필요한 생소한 개념을 뒤쪽에 배치하였으며 동시에 ‘文選’의 진도와도 상관되어 있는데 이는 단계적 학습에 매우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3.3 ‘교양한문’ 수업의 검토

국내 각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교양한문’류 수업은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우리말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중국어강독’과 분명 차이가 있다.¹¹⁾ 평균적으로 전공자는 비전공자에 비해 한자와 중국어 문장에 익숙하다. 하지만 상당수 전공자의 문언문 실력이 입문의 단계에 그치는 반면 ‘교양한문’은 우리말로 진행되기 때문에 두 수업의 수준과 진도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양한문’류 수업의 내용과 설계는 참고할 가치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필자는 서울대학교 ‘초급한문1’과 ‘초급한문2’의 주교재인 《풀어쓴 대학한문 초급편》(이하 《초급편》)의 내용을 관련 연구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초급편》은 1권으로 2학기 동안 사용된다. 하지만 46배판으로 352페이지에 달해 초급 단계임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분량이다. 내용은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제1편에서 제3편까지가 文選이다. 제1편과 제3편은 散文이며 총 280페이지로 비중이 가장 큰 편이다. 상대적으로 작은 분량인 韻文과 文法도 별도의 편으로 독립되어 있다. 제1편과 제3편은 각각 8개와 6개의 章이 있으며 각 章의 하위에는 동일한 주제의 節이 6개 내외로 있다. 각 節의

11) 전희연(2015)에 의하면 교양한문 수업의 교재는 한문 중심의 전통적인 교양한문류, 한자·한문 혼합형, 한자급수용으로 나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장 위주의 교양한문류 교재에 한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상단에 내용을 소개하는 소제목이 표시되어 있고 그 아래에 150자 내외의 원문이 번체 한자로 제시된다. 원문 아래의 ‘해설’에는 원문을 문장 단위로 나누어 옮기고 각 문장 아래에 우리말 발음을 병기하였다. 우리말 발음은 후반부에 해당하는 제2편 제2장부터 제시되지 않는다. 그 아래에는 문장마다 관련된 주석이 제시된다. 각 절의 말미에는 해제의 형식으로 작자나 출처에 대한 소개가 요약되어 있다. 일부 節에는 주석과 해제 사이에 배경 지식에 관한 보충 설명이 제시된다. 제3편의 한시 부분은 총 2장으로 나뉘며, 각 장에 20수씩 총 40수의 한시가 인용되었다. 총 55페이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각 작품의 설명 방식은 산문과 동일하다. 다만 말미의 해제는 작자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제4편 문법편은 문장 분석의 단위인 품사, 구조, 어순, 문형 등의 문법적 특징에 대하여 30페이지 남짓의 분량으로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아래의 <표 3>은 《초급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풀어쓴 대학한문 초급편》(서울대학교출판부, 2015)의 주요 내용

제1편 지식인의 삶	제1장 올바른 가치관 제2장 다양한 모습들 제3장 선인들의 언행 제4장 판단의 어려움 제5장 판단의 어려움 제6장 사회 모순과 비판 제7장 사림의 방식 제8장 재미있는 이야기
제2편 한시 감상	제1장 사계절의 노래 제2장 한시의 흥취
제3편 학문과 인생	제1장 학문의 길 제2장 올바른 교육 제3장 훌륭한 인재 제4장 처세의 태도 제5장 역사 속의 이야기 제6장 명문 감상
제4편 문법의 이해	제1장 단어와 품사 제2장 한문의 구조 제3장 한문의 어순 제4장 한문의 문형

《초급편》이 ‘중국고전강독’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용문의 배열에 있어 내용 중심의 주제별 분류 방식을 취했다는 점이다. 본서를 제외한 다수의 ‘교양한문’류 교재들이 주제를 우선 기준으로 원문을 배열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주저자인 이강재(2001)와 강민호(2014)는 한문 강의가 단순한 도

구의 학습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인간학 강의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전공과 교양을 불문하고 내용 중심의 토론식 수업을 지향한다면 이는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된다.¹²⁾

둘째, 주석과 해제 그리고 별도의 문법편에서 문장 해석에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다. 본서는 책머리에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주석에는 허사를 포함하여 인용된 문장과 관련된 대부분의 어휘에 대하여 해설이 제시되어 있다. 저자들은 수강생들이 이전보다 한자와 한문에 대한 관심과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 사회 현상을 고려하여 이러한 방식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부기된 주석은 페이지나 문단 단위가 아닌 문장을 단위로 편집되었기 때문에 가독성이 매우 높았다.

셋째, 문법편을 독립적인 章節로 구성하여 주석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물론 개사, 조사, 접속사, 어기사 등 주요 허사의 용법이 제외되었고 주요 대사, 부사의 용법도 설명되지 않아 전공자에게 적용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또한 일부 용어의 사용과 문형의 분류 기준이 단일하지 않은 점은 이론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품사의 활용과 빈어전치 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기존 교재에서 언급되지 않던 주어와 주체어의 문제를 소개하거나 ‘介詞’나 ‘賓語’ 등의 중문학계의 용어를 사용한 점 등은 참고할 가치가 크다.

본 교재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교양한문’류 교재의 문법편은 품사, 구조, 어순, 문형 등에 비교적 많은 지면을 소비한다. 그러나 전공자가 문언문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품사나 구조의 이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문언문의 품사, 구조, 문형의 체계는 현대중국어와 큰 차이가 없으며, 설사 있더라도 그것이 대개 사용된 단어의 차이에 불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대중국어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이 문제는 문법이 아닌 어휘의 문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문법적 지식에 있어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피동문’, ‘비

12) 고려대학교출판부(1997) 《교양한문》, 성균관대학교출판부(2016)의 《교양한문》, 이화여대출판문화원(2013) 《생활 한자와 교양 한문》의 작품 감상 부분은 모두 이러한 기준으로 배열되었다.

교문과 같이 형식이 현대중국어와 상이하면서도 동일한 의미 기능을 담당하는 구문이나 현대중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허사들의 용법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중문과의 문언문 수업은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3.4 설문 조사의 결과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필자는 총 74명의 수강생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응답자 가운데 제1전공자는 64.9%이고, 이중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등은 35.1%이다. 전체를 중국어 실력과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분류하면 초·중급 학습자가 44.59%, 고급은 31.08%, 장기체류자는 17.6%, 모어화자는 6.8%이다.

먼저 학생들의 문언문 수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학생들은 문언문 학습 자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는데, 문언문 수업의 당위성에 대한 질문에서 과반 이상(58.1%)의 인원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초·중급 학습자의 대다수(66.7%)가 필요성을 긍정한 반면 장기체류자(46.2%)와 모어화자(60.0%)는 대체로 불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표4> 문항1의 결과 : 전공자는 문언문의 독해 능력은 갖추어야 한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초·중급	0.0%	6.1%	27.3%	30.3%	36.4%
고급	0.0%	4.3%	30.4%	52.2%	13.0%
장기체류	0.0%	46.2%	15.4%	15.4%	23.1%
모어화자	0.0%	60.0%	20.0%	0.0%	20.0%
전체	0.0%	16.2%	25.7%	32.4%	25.7%

반면 실용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수(31.5%)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중국에 대한 경험이 비교적 많은 장기체류자(61.6%)와 모어화자

(100.0%)가 매우 높은 비율로 긍정하였으며, 초·중급 학습자(21.2%)와 고급 학습자(13.6%)는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

<표5> 문항2의 결과 : 문언문 수업은 여러 방면에서 유용하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초·중급	9.1%	30.3%	39.4%	21.2%	0.0%
고급	4.5%	31.8%	50.0%	9.1%	4.5%
장기체류	15.4%	15.4%	7.7%	46.2%	15.4%
모어화자	0.0%	0.0%	0.0%	60.0%	40.0%
전체	8.2%	26.0%	34.2%	24.7%	6.8%

수업의 난이도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과반 이상(58.1%)이 '어렵다'(32.4%)와 '매우 어렵다'(25.7%)를 선택하였으며, '매우 쉽다'(0.0%)고 답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장기체류자(46.2%)와 모어화자(60%)에서 '쉽다'를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매우 어렵다'를 선택한 비율은 초·중급 학습자(36.4%)에서 가장 높았다.

<표6> 문항3의 결과 : 본 수업은 나에게 어려운 편이다.

	매우 쉽다	쉽다	보통이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초·중급	0.0%	6.1%	27.3%	30.3%	36.4%
고급	0.0%	4.3%	30.4%	52.2%	13.0%
장기체류	0.0%	46.2%	15.4%	15.4%	23.1%
모어화자	0.0%	60.0%	20.0%	0.0%	20.0%
전체	0.0%	16.2%	25.7%	32.4%	25.7%

다음으로 학생들에게 한국어 보충설명이 필요한 영역을 질문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상 학생들이 수업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분야를 가리킨다. 다수의 학생들이 문장의 '문법적 분석'(37.1%)과 '어휘의 설명'(18.6%) 항목을 선택하였다. 모어 화자(60.0%)의 경우 '원문의 번역'에서 한국어 보충

설명을 필요로 하였다.

<표7> 문항4의 결과 : 한국어로 보충 설명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인가?

	어휘	문법적 분석	허사	현대문 번역	내용의 시사점	배경 지식
초·중급	9.7%	48.4%	3.2%	6.5%	12.9%	19.4%
고급	34.8%	26.1%	21.7%	8.7%	8.7%	0.0%
장기체류	18.2%	45.5%	9.1%	0.0%	9.1%	18.2%
모어화자	0.0%	0.0%	0.0%	60.0%	20.0%	20.0%
전체	18.6%	37.1%	10.0%	10.0%	11.4%	12.9%

다음으로 교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학생들에게 스스로 학습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현행 교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요구하였는데 학생들은 대부분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절대 다수의 학생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 대하여 스스로 학습하기에 '부족하다'(24.3%)와 '매우 부족하다'(52.7%)라고 답하였다.

<표8> 문항5의 결과 : 스스로 학습하기에 교재의 해설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초·중급	3.0%	3.0%	21.2%	15.2%	57.6%
고급	0.0%	4.3%	8.7%	43.5%	43.5%
장기체류	0.0%	15.4%	23.1%	7.7%	53.8%
모어화자	0.0%	0.0%	0.0%	40.0%	60.0%
전체	1.4%	5.4%	16.2%	24.3%	52.7%

고한어 관련 이론을 문법, 허사, 어휘 및 문자, 문화 상식 등의 영역으로 각각 구분하여 현행 교재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였다. 학생들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영역별로 구분해서 보면 문법(70.3%)과 허사(66.2%)의 설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다른 영역에 비해 높다. 집단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초·중급 학습자의 불만족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으며, 장기체류자의 불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표9> 문항6의 결과 : 문법 분석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다.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초·중급	0.0%	6.1%	15.2%	36.4%	42.4%
고급	4.3%	13.0%	17.4%	39.1%	26.1%
장기체류	7.7%	23.1%	23.1%	30.8%	15.4%
모어화자	0.0%	0.0%	0.0%	40.0%	60.0%
전체	2.7%	10.8%	16.2%	36.5%	33.8%

<표10> 문항7의 결과 : 허사의 용법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다.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초·중급	3.0%	9.1%	21.2%	27.3%	39.4%
고급	4.3%	13.0%	17.4%	43.5%	21.7%
장기체류	7.7%	7.7%	23.1%	46.2%	15.4%
모어화자	0.0%	0.0%	20.0%	40.0%	40.0%
전체	4.1%	9.5%	20.3%	36.5%	29.7%

<표11> 문항8의 결과 : 문자, 어휘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다.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초·중급	3.0%	21.2%	21.2%	39.4%	15.2%
고급	4.3%	21.7%	30.4%	26.1%	17.4%
장기체류	15.4%	23.1%	23.1%	30.8%	7.7%
모어화자	0.0%	0.0%	20.0%	40.0%	40.0%
전체	5.4%	20.3%	24.3%	33.8%	16.2%

<표12> 문항9의 결과 : 고대 문화 상식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다.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초·중급	6.1%	18.2%	24.2%	33.3%	18.2%
고급	0.0%	0.0%	30.4%	60.9%	8.7%
장기체류	7.7%	23.1%	38.5%	15.4%	15.4%
모어화자	0.0%	20.0%	0.0%	40.0%	40.0%
전체	4.1%	13.5%	27.0%	39.2%	16.2%

4. 검토의 결과와 대안의 제시

이상에서 필자는 ‘중국고전강독’ 그리고 중국의 ‘고대한어’, 국내의 ‘교양한문’류 수업의 교육 내용과 기본 설계에 대하여 개별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수강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습자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였다. 검토와 분석의 결과로 ‘중국고전강독’의 교육 내용과 기본 설계에 관한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수업의 기본 목표는 언어 교육과 문화의 교육으로 설정한다. 단, 입문 단계를 포함하는 과정은 언어 교육에 중점을 둔다.

둘째, 문언문 교육에서 언어 교육이란 원문을 해독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교육 내용에 원문을 정확히 해독하고 이해하는 훈련 과정을 반드시 포함한다. 語彙, 文法, 文字 등 고한어 관련 이론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원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한다. 수업과 교재에 사용하는 언어는 지정된 언어로 통일한다.

셋째, 교재의 원문은 주제, 문체, 난이도, 편폭, 저작연대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열한다. 短文을 長文보다 앞쪽에 배치하고, 雜記文이나 史傳文을 說理文이나 應用文보다 앞쪽에 배치한다. 시·사·부 등 韻文과 駢文은 기타 과목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선별하거나 완전히 배제한다. 만약 포함할 경우 가급적 散文보다 뒤쪽에 배치한다. 동일한 기준 내에서는 연대별로 배열한다. 내용 중심의 주제별 배열 방식은 주제 중심의 토론식 수업을 지향하는 심화 과정에 적용한다. 원문은 교수자가 각자의 개성을 살려 선택할 수 있으면서도 전체 편폭이 과도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예상 진도의 2배 정도의 분량을 수록한다.

넷째, 교재에 원문 해독에 필요한 정보를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세히 제시한다. 이 때 각 원문 아래에 부기되는 ‘주석’과 ‘보충 설

명, '해제' 등의 지면을 활용한다. '주석'은 어휘의 해설과 문법 구조의 분석을 중심으로 최대한 상세하게 구성한다. 문자와 음운에 관한 정보는 난독자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제시한다. '보충 설명'은 본문과 관련되어 있으나 주석에 포함되기 어려운 어학지식이나 문화상식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해제'는 작자, 작품, 문집에 관한 설명을 요약하여 제시하되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감상과 평가를 보장하고 계몽적 결론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섯째, 고한어 관련 필수 이론들을 독립적인 章節로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이것은 '주석'의 단절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語彙와 文法에 대한 이론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범위, 분량, 난이도 등은 학생들의 사전 학습 정도, 기타 교과와의 연계성, 편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 중 語彙는 개별 어휘의 다의구조를 학습할 수 있는 '常用詞'와 같은 항목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 이 때 '常用詞'의 내용은 文選의 내용과 연계하여야 한다. 단, 허사는 문선에 출현했다라도 '문법'의 관련항목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文法 부분은 고한어의 문법 체계 전체를 총괄할 필요는 없으며, '판단문', '품사의 활용', '빈어전치'와 같이 현대중국어와 형식적으로 차이가 크면서 문장 해독에 필수적인 항목들을 선별한다. 관련 강좌가 이미 개설되어 있다면 文字, 音韻, 文體, 格律, 文化常識에 관한 내용들은 전체 편폭을 고려하여 원문의 '보충 설명'으로 축소하여 편성한다.

문언문 수업의 교육 내용과 설계에 관한 필자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표 13> 문헌문 수업의 교육 내용¹³⁾

장	문헌	상용어의 이해	고한어 상식
1	雜記文	(一)	(1)고한어의 기본 개념 (2)사건 찾는 법 (3)한자의 발전 (4)어휘의 발전
2	史傳文	(二)	(5)품사의 활용 (6)어순의 변화 (6)판단문 (8)피동문
3	應用文	(三)	(9)대사와 조사 (10)부사 (11)개사와 접속사 (12)어기사와 접두·접미사
4	說理文	(四)	(13)고대의 호칭법 (14)고대의 직관 (15)고대의 지리 (16)고대의 역법
5	駢文·韻文	(五)	(17)수사법의 이해 (18)변문의 특징 (19)운문의 특징 (20)詩의 율격

위의 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는 5개의 장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장은 문헌, 상용어의 이해, 고한어 상식으로 구성된다. 원문은 번체자를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간체자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각 장의 대분류는 원문의 文體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雜記, 史傳, 應用, 說理, 駢文, 韻文의 순서로 배열한다. 각 장의 문헌에 포함될 원문은 편폭, 난이도, 저작연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열한다. 단문은 150자 내외가 적당하며, 장문의 경우 150자 내외로 문단을 나누어 편집한다. 개별 원문마다 주석, 보충설명, 해제를 부기한다. 전체적인 편폭에 제한이 있을 경우 5장 내용 전체를 삭제할 수 있다.

셋째, 각 장의 상용어는 문헌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을 선별하여 필요한 해설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史傳文의 상용어는 정치, 외교, 군사와 관련된 용어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說理文의 상용어는 ‘說’, ‘曰’, ‘言’, ‘語’ 등 언설류 동사를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별 항목의 해설은古今의 의미 차이, 본의와 인신의, 동어어 및 유의어와의 차이 등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13) <표 13>에 제시된 ‘雜記’, ‘史傳’, ‘應用’ 등은 인용문 선별의 기준으로 제시한 용어이다. 교재에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사의 이해’, ‘논설문’ 등의 비학술적인 용어로 바꾸거나 모두 삭제하고 ‘1장, 2장, ……’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넷째, 고한어 상식은 ‘도입’, ‘문법(1)’, ‘문법(2)’, ‘문화상식’, ‘문체 및 기타’로 대분류되며, 문장 해독에 필수적인 이론만을 선별하여 최대한 간략히 설명한다. 도입에는 문자와 어휘의 기본 개념을 포함한다. 문법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문법 체계 전체를 기술하지 않는다. 전체적인 편폭에 제한이 있는 경우, ‘문화상식’, ‘문체 및 기타’의 내용은 삭제하거나 관련 단원의 보충 설명으로 축소한다.

5. 결론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인적 교류는 날이 갈수록 빈번해지지만 최근 학생들의 문언문 수업에 대한 수요와 관심은 그 중요성에 비해 매우 위축되었다. 이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입시, 학사, 취업 등의 제도의 문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종래의 문언문 교육이 전통적 방법만을 고수하며 변화된 시대를 반영하지 않았던 관성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중국고전강독’ 수업의 교육 내용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검토의 결과와 제시된 개선안은 다음의 몇 가지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입문 단계의 문언문 수업은 언어 교육을 중심으로 설계한다.

둘째, 원문에 대한 해설은 최대한 상세하게 제시한다.

셋째, 고한어 이론과 고대 문화상식에 관한 내용을 제시한다.

넷째, 교재는 필수적인 정보만을 선별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시한다.

본 논문의 검토와 제안이 특정 수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문언문 관련 수업에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에 필자는 문언문 교육에 대한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을 제안하며, 보다 많은 성공 사례와 피드백의 축적을 기대한다. 이를 통해 본고가 제시한 대안들의 유효성도 검토

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항목별 세부 내용을 비롯하여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나 교수-학습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기를 기약한다.

< 參考文獻 >

- 강민호, <서울대학교 교양한문의 실태와 개선 방안>, 《한국문화》 제66집, 2014.
- 변형우, <언어학적 한문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문학》 제38집, 2002.
- 신지원, <사례를 통해서 본 미국 대학에서의 한문 교육>, 《한국문화》 제66집, 2014.
- 신하윤, <중국고전문학과 한문교육>, 《중국문학》 제38집, 2002.
- 정운철, <중국어교육의 연구영역 분류>, 《중국학》 제41집, 2012.
- 이강재, <대학 교양 한문 교육의 현황과 개선>, 《중국문학》 제38집, 2002.
- 이제우, <중국어문학과 '문언문' 교과교육>, 《중국어문논역총간》 제17집, 2006.
- _____, <'중국문언' 교과의 번역교육>, 《중국어문논역총간》 제40집, 2017.
- 전희연, <대학 교양한문 교육의 변천과 교수 학습방법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 강민호, 이강재 편저, 《풀어쓴 대학한문 초급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 고려대학교한문학교실, 《교양 한문》,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1997.
- 성균관대학교 교양한문 편찬위원회, 《교양한문》,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6.
- 이화여자대학교 생활한자와 교양한문 편찬위원회, 《생활 한자와 교양 한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 郭錫良等編著, 《古代漢語(修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1997.
- 王力主編, 《古代漢語(校訂重排本)》, 北京: 中華書局, 1999.

< Abstract >

A Proposal for Educational Content of Literary Chinese Course:
Focusing on the Departmental Courses Offered by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Department

Yoon, Soon-il

In this paper, we have investigated the students' satisfaction in educational content of literary chinese course as a major course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department. We analysed three types of teaching material and conducted a survey among 74 student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1) The introductory course of literary chinese should be centered on language education. (1)The introductory course of literary chinese should be centered on language education. (2)Educational content should include in as much detail as possible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exts. (3)Educational content should include information about the linguistic theories of literary chinese and cultural knowledge of ancient china. (4)Teaching material should only provide essential content, with which students can easily understand and learn about literary chinese.

Key words: Literary Chinese, Educational Content, Teaching Material, Language Education, Linguistic Theory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7. 07. 31.	2017. 08. 27.	2017. 08. 30.	2017. 09. 16.	2017. 09. 30.